

해외

중국 해외인재 유치 현황 및 관련 정책

중국은 값싼 인건비를 기반으로한 '세계 공장'에서 '글로벌 두뇌공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성장 저변에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양성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존재한다. 특히, 중국 정부는 백인계획(百人計劃)을 시작으로 다양한 해외인재 유치 정책을 실시하여 우수한 해외인재를 확보함으로써 지식혁신, 과학기술혁신, 산업혁신의 우위를 선점하고, 글로벌 경쟁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본고는 중국글로벌화 연구센터가 발간한 「2013년 중국해외귀국인재발전보고(中國海歸發展報告)」 및 해외인재 유치 정책과 관련된 중국 정부부처의 문건, 중국 교육부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 현황과 관련 정책을 분석·정리하였다.

I. 들어가면서

‘인적자원’이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적유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현 시대에서 각 국가는 ‘두뇌유출’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두뇌유입’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적인 인재의 유입에 있어서 패권적 지위에 있는 미국조차도 H1-B 비자 프로그램 운영, 취업영주권 확대 등 해외 전문 인력의 유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 역시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개인 및 기관 유치와 인프라 구축을 병행한 해외인재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치열한 인재확보 전쟁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국가는 단연 중국이다. 1978년 개혁·개방정책이 시행되면서 중국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한 고급인재의 필요성을 해외인재

유치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지식을 존중하고, 인재를 존중해야 한다.”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지도사상에 따라 ‘백인계획(百人計劃)’, ‘자연과학기금위원회 걸출청년계획(自然科學基金委傑出青年計劃)’ 등의 인재 양성 및 유치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는 1990년대에 들어서에는 해외에서 취직하였거나 재학 중인 유학생의 회귀를 촉진하고자 ‘유학을 지지하고, 귀국하는 것을 격려하며, 선택은 자유’라는 정책 기조아래, ‘춘취계획(春暉計劃)’, ‘장강학자계획(長江學者獎勵計劃)’, ‘111계획’, ‘천인계획(千人計劃)’ 등 다양한 해외인재 유치 정책을 제정·시행하였다. 상기의 정책들은 지금까지도 중국 정부의 대표적인 해외인재 유치 정책의 일환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7년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R&D 인력을 보유한 국가로 부상하였으며, 인재유출입의 불균형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하버드대학, 듀크대학, 뉴욕대학이 2007년 공동 조사·발표한 <지적재산권, 이민자 적체와 인재 역류: 미국의 새로운 이민창업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는 이미 ‘인재 역류’가 시작되었고, 역류 방향은 주로 ‘중국’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인재유입국으로서 중국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 해외인재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 국제지표 상으로 인재유치에 관련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 정책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II. 해외인재에 대한 개념 및 범위

중국에서 ‘해외인재’에 대한 개념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해외인재 유치와 관련된 중국 내 각종 정책을 살펴보면, 외국인 문학·교육 전문가, 외국인 연구학자, 해외에 체류 중인 중국인 유학생, 해외대학교수 등을 해외인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해외인재 조건을 통해 해외인재의 개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해외인재에 대한 중국의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학분야의

교원은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교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하며, 언어의 발음, 억양, 어조가 정확하고 유창해야 한다. 둘째, 전공분야의 교원은 일반적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갖추어야 하며, 그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론 지식을 갖추고 동시에 학문의 최신 발전 경향을 숙지하고, 전공과 관련된 풍부한 실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셋째, 과학연구에 종사하는 자는 박사 학위 또는 고급 전문기술자의 호칭에 적합해야 하며, 관련 연구경력이 있어야 하고, 관련 분야의 선진기술과 이론에 대한 지식 및 연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해외인재 유치 정책을 분석·종합한 결과, 중국의 해외인재의 범위는 지리적 관점(거주지)과 법률적 관점(국적)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 대륙에 취업하고자 하는 중국 국적자 혹은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에서 유학하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중국 국적자이다. 두 번째는 해외 국가 및 지역에서 유학하거나 취업한 중국 국적자이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중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중국 대륙에서 유학하거나 취업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하며, 외국인 전문가 및 중국 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 유형에 포함된다. 네 번째 유형은 중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유학 및 취업 이외에 각종 중국 내의 교류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한다.

Ⅲ. 해외인재유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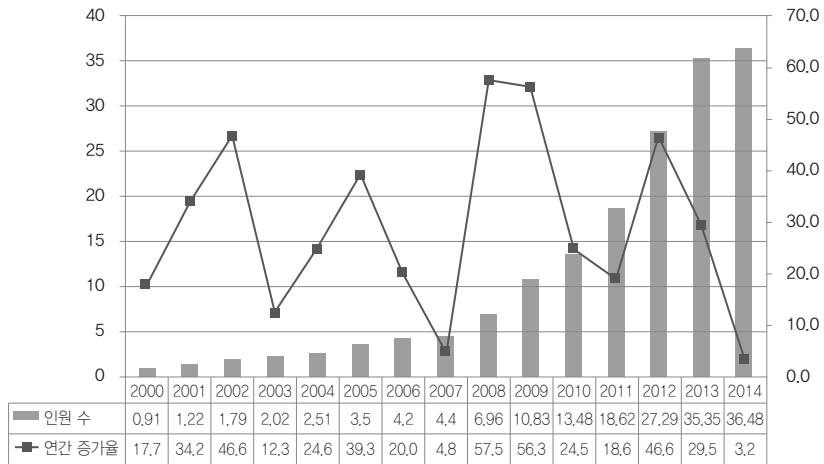
중국 정부는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해외인재 유치와 관련된 정확한 통계는 제공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다만, 중국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귀국 현황, 중국 내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현황 등을 기반으로 유추해 봤을 때, 중국에 유입되고 있는 해외인재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2000년 이래 중국인 유학생의 귀국인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4년 유학생 귀국인원 수는 작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36.48만 명에 달하였다. 그리고 <표 1>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회귀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중국인 유학생의 누적 귀국인원수는 180.96만 명에 이르며, 최근 10년간 중국인 유학생의 회귀비율은 꾸준히 증

가하여 2014년에는 처음으로 50%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그림 1. 2000~2014년 중국유학생 귀국인원 수 및 성장률

(단위: 만 명, %)



자료: 중국 교육부 통계자료, 연도별 정리.

표 1. 2004~2014년 누적 출국인원수, 귀국인원수, 회귀율

연도	누적 출국인원 수(만 명)	누적 귀국인원 수(만 명)	회귀율(%)
2004	81.4	19.8	24.3
2005	93.3	23.3	24.9
2006	106.7	27.5	25.8
2007	121.2	32.0	26.4
2008	139.0	39.0	28.0
2009	162.0	49.7	30.7
2010	190.5	63.22	33.2
2011	224.5	81.84	36.5
2012	264.46	109.13	41.3
2013	305.85	144.48	47.2
2014	351.83	180.96	51.4

자료: 중국 교육부 통계자료, 연도별 정리.

또한 중국 교육부에 의하면 2014년을 기준으로 중국에 체류하면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표 2>와 같이 377,05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하였다. 이 중 한국인 유학생은 62,923명으로 전체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중국 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 외국유학생(명)	238,184	265,090	292,611	328,830	356,499	377,054
동기대비 증가율(%)	6.57	11.3	10.38	12.21	8.58	5.77

자료: 중국 교육부 통계자료, 연도별 정리.

그밖에 국제경영개발연구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 발표하는 해외고급인력 유인지수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2002년 5.19(23위)에서 2010년 4.58(33위)으로 하락한 반면, 중국은 2002년 4.35(33위)에서 2010년 5.83(13위)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외고급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중국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IMD의 해외고급인력 유인지수 추이

(단위: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미국	9.32(1)	9.02(1)	8.64(1)	8.61(1)	8.74(2)	8.29(4)	8.40(3)	7.80(3)	8.08(3)
한국	5.19(23)	4.53(30)	4.33(25)	5.14(27)	5.09(31)	3.78(48)	4.46(32)	4.39(37)	4.58(33)
중국	4.35(33)	4.32(34)	5.24(23)	4.66(37)	5.53(22)	5.92(17)	5.26(18)	6.05(13)	5.83(13)

주 1) 0~10 사이의 값. 10에 가까울수록 해외고급인력의 유인이 매우 용이함을 의미.

주 2) ()안은 전체 조사대상국 중 순위.

자료: IMD, '세계경쟁력 연감', 연도별자료 추출.

IV. 해외인재유치 관련 정책

중국의 인재유입 확대의 저변에는 무엇보다 해외인재를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중국에서 시행 중인 해외인재 유치 정책은 교육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외 중앙정부 출연기관인 중국과학원과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중국과학기술협회 등에서도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중국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백인계획(百人計劃)

백인계획은 1994년 중국과학원에 의해 실시된 중국 최초의 해외인재 유치 사업이다. 백인계획은 기본적으로 45세 미만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 연구 종사자로서 국제적인 연구 성과를 취득한 자 혹은 응용 연구나 기술개발 종사자로서 독창적이고 응용 가치가 높은 기술성과를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계획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차적으로 연구 착수금(기자재 구입, 주택구입비로 사용 가능)을 지원하며, 국가의 규정에 따른 보수 및 특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백인계획이 처음 실시된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총2,145명의 인재를 선발하였으며, 그 중 90% 이상이 해외 학위 혹은 해외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2. 춘취계획(春曄計劃)

춘취계획의 공식명칭은 ‘교육부 유학인원 단기귀국 근무 전용 지원경비(教育部資助留學人員短期回國工作專項經費)’이며, 해외에서 유학한 중국인 학자들의 단기 귀국을 촉진하고자 1997년에 처음 실시되었다. 주요대상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연구분야에 뛰어난 학술성과를 취득한 유학인재(국의 장기 및 영주권 혹은 재입국 허가를 소지한 자)이며, 춘취계획에 선정될 경우 편도 또는 왕복 여행경비를 지원받는다. 단, 지원범위는 초청에 의한 학술회의의 참석, 공동연구 또는 학술교류 진행, 심포지엄 참가, 박사과정 학생의 공동지도, 빈곤지역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중대형 국유기업의 기술혁신 참여, 해외공관 교육처의 허가를 취득한 단기 봉사활동으로 한정하였다.

2010년부터는 춘취계획의 일환으로 해외 명문대학의 강사 또는 일반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학자를 대상으로 ‘학술연구년 기간 귀국 근무 프로그램(學術休假回國工作

項目)’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학자에게는 왕복항공료와 상여금 지급(동급 교수 월급의 5~8배), 주택지원, 의료보험금 부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단, 이 프로그램은 ‘211공정’ 대학, 첨단기술 관련 학과에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8년부터 지금까지 춘취계획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은 학자는 약 1,1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3. 창장학자장려계획(長江學者獎勵計劃)

창장학자장려계획은 1998년에 중국 교육부와 홍콩 창장기진(長江基建/CKI)그룹의 리자청(李嘉誠) 회장이 공동으로 설립한 계획으로, 해외 학술 선두주자 및 청장년 인재 유치를 통한 중국 고등교육의 학술 수준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계획은 ‘특별초빙교수제도(特聘教授崗位制度)’와 ‘창장학자 성취상(長江學者成就獎)’으로 나뉜다.

창장학자장려계획은 1998년에 시작된 이후 2004년, 2011년, 2014년에 걸쳐 총 3회 수정·보완되었으며, 선정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먼저, 특별초빙교수에 임용된 자에게는 고용수당(崗位津帖) 명목으로 매년 20만 위안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강좌교수에게는 매월 3만 위안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 복지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재직 기간 중 뛰어난 학술성과를 제공하였거나, 탁월한 업적을 성취한 자를 선발하여, 연 1회 ‘창장학자 성취상(長江學者成就獎)’을 수여하는데, 1등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 위안, 2등상 3명에게는 각각 50만 위안을 지급하도록 한다.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창장학자장려계획’을 통해 166개 대학에서 2,251명의 창장학자를 선발하였으며, 그중 특별초빙교수가 1,546명, 강좌교수가 705명이었다. 특별초빙교수 중 해외에서 유학을 하였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학자가 90% 이상이었고, 강좌교수는 모두 해외에서 초빙한 학자들로 구성되었다.

4. 111계획(111計劃)

111계획은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2006년 중국 교육부 및 국가외국전문가국이 공동으로 설립한 해외인재유치계획을 의미한다. 111계획의 주요내용은 학술거장 1,000명을 초빙하여 중국 내의 우수한 학자와 팀을 구성하게 하고, 100여 개의 학과혁신기지(學科創新基地)

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세계 상위 100위권 내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하는 70세 이하(학술대사), 50세 이하(중견학술연구자)의 학자 혹은 연구자로서, 자신의 전공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지위와 우수한 학술성과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계획을 통해 중국으로 초청된 해외인재는 주로 211공정 및 985공정 대학에 배정되며, 이들에게 각종 과학 연구비용 및 국제여비, 수당, 거주비용, 의료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5. 천인계획(千人計劃)

천인계획은 중국 공산당 판공청이 지난 2008년 12월에 발표한 것으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 계획(海外高層人才引進計劃)’이라고도 한다. 이 계획의 핵심은 향후 5~10년 동안 1,000여명의 해외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데 있다. 천인계획은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해외인재 유치 사업으로, 이 계획과 관련된 실질적 업무는 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의해 구성된 ‘해외고급인재유치업무소조(海外高層次人才引進工作小組)’에서 전담하고 있다.

천인계획의 신청조건은 기본적으로 해외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55세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매년 6개월 이상 중국에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 상기의 기본 조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한 가지 조건에 부합할 경우 이 계획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첫째, 외국의 유명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교수 직책에 해당하는 전문가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해외 혁신형 인재이다. 둘째, 국제유명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고급 전문기술직과 경영 관리직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해외인재이다. 셋째, 독자적인 지적재산권, 혹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창업한 경험이 있으며, 관련 산업분야와 국제규범을 숙지한 창업형 인재이다. 넷째, 국가 차원에서 긴급히 필요한 기타 우수혁신 창업형 인재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2012년 말, 중앙정부 차원의 ‘천인계획’은 이미 3,319명을 유치했고, 전국적으로 이미 해외고급인재 전문기지 112곳이 건립되었다.

천인계획을 통해 초청된 해외 우수인재에게는 복수 비자 발급, 1인당 100만 위안의 보조금 지급 외에 별도의 의료보험과 퇴직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당 인재의 가족들에게도 외국인 영구거주증이나 2~5년의 복수비자를 제공하는 등의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


하고 있다.

그 밖에 중국 정부는 교육부 주도의 ‘유학귀국인원 과학연구기금(教育部留學回國人員科研啓動基金)’ 및 ‘신세기 우수인재 지원계획(新世紀優秀人才支持計劃)’,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주도의 ‘적자계획(赤子計劃)’, ‘우수인재 지원금(人社部擇優資助費)’, ‘유학인원 귀국 창업지원계획(留學人員回國創業支持計劃)’, ‘고급 유학인재 귀국 지원계획(高層次留學人才回國資助計劃)’, 중국 과학원 주도의 ‘중국과학원 고급방문학자계획(中科院高級訪問學者計劃)’, ‘왕관청상금(王寬誠獎金)’,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주도의 ‘국가걸출청년과학기금 B유형 지원금(國家傑出青年科學基金B類資助)’, ‘단기귀국기금(短期回國基金)’, 국가해양국 주도의 ‘해양계통 12·5 우수인재 유치계획(海洋系統“十二五”引進留學人才計劃)’ 등 다양한 해외인재 유치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외 인재유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각 지방정부 역시 인재사무소를 설립하고, 현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인재정책을 출범하였다. 대표적으로 베이징의 ‘하이취 공정(海聚工程, 해외인력 집적사업)’, 후난의 ‘313계획’, ‘우시의 530계획’, ‘항저우의 5050계획’ 등이 있다.

V. 결론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 정책은 풍부한 인적 및 물적 자원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매우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부처인 교육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를 중심으로 국가 기관과 연구단체들이 긴밀하게 협력·공조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외 인재유치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강력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해외인재 유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정책 시행과 관련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연구조건 및 시장환경의 제한으로 인해 세계적인 석학을 유치하는 데에는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지방정부 간의 소모적 경쟁, 인재들의 ‘떡튀’현상도 해결이 시급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도 과학기술경쟁력의 하락 및 인재 수요 ·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창조경제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해외인재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정책은 한국의 인재양성전략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에 비해 ‘기술우위’국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선진국의 도약형 인재육성 트렌드만 쫓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앞부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중국은 더 이상 인재취약국이 아니며, 경쟁력 있는 인재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기존의 시대착오적 인식에서 벗어나 중국의 해외인재 유치 정책의 장단점, 운영 현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작성: 장상윤 산동사범대학 상학원 강사)

참고문헌

- 王辉耀, 苗绿. (2013). 中国海归发展报告(2013版). 社会科学文献出版社.
 中国教育部. (2011). “长江学者奖励计划” 实施办法
 中国科学院. (2014). 白春礼：“百人计划”二十年回顾与思考
 国家千人计划网. (<http://www.1000plan.org>)
 中国教育部. (<http://www.moe.go.kr>)